

## 일어나 따르니라

\*날짜 : 9월 14일

\*찬송 : 450장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5:27-28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 1.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과 출신배경이 너무 다양했다. 가장 많은 직업군이 어부였는데 5명이나 되었다. 또 정치적 성향도 달랐다. 세리와 같은 친로마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제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당과 같은 반로마적인 성향의 제자도 있었다. 당시 세리 레위는 동족의 고혈을 빨아 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투사였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 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다는 게 신기하다.

▶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 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다. ‘목동과 세금 징수원이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회개한 다음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칠 정도였다. 오죽 했으면 당시에 구제금을 거둘 때도 세리가 내는 돈은 거부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와 이방인’ 이었는데, 세리는 노예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 정도로 세리는 그 사회에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다.

▶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둘째는,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왜 저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가나? 왜 밥만 먹고 가나?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인거다.

▶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병든자 그리고 죄인이다. 누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인가? 건강한 자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누가 ‘아멘’ 할 수 있는가? 병든 자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다.

### 2. 서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매국노와 독립투사가 함께 주님의 제자로 지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 당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세리였는데, 오늘날 세리는 어떤 직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나는 병든 자인가 건강한 자인가, 스스로 의인인가 죄인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찬송: 484장

### \*합심기도

1. 의인이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2.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2025년 구역식구들이 서로 밑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예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4.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작성: 이성실)